

IT
30
IT



IT (IT) 30
IT : KT
: KTF
: KTF
: KT
, KTF
IT IT
가
IT
“ IT
”

“ IT
”
“ IT
” “
” “ IT
”
“ IT
가
” “
”
IT
2004 6 IT
30 IT

27 ,

○ !
○

!!

노동조합은 27 일(오늘) 열린 단체협약실무소위원회에서 조합안<표>을 제시하고 사측이 추가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아닌지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은 기본급 삭감은 있을 수도 없으며 총액이 삭감될 경우 주 5 일 근무제의 취지가 퇴색할 것이라며 기본급 및 각종수당과 간주초과근로시간 등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근로기준법상 임금보전을 명시하고 있는데도 사측이 기본급을 삭감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터무니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사측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연장근로하는 사람이 있는데 토요일을 유급으로 할 경우 비용증가로 이어진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토요일과 일요일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수당지급이 달라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타 동절기 폐지, 휴일사용촉진, 생리휴가, 연차 등 공방이 이어졌으나 뚜렷한 접근이 이뤄지지 않자 사측의 노동조합안 검토와 입장정리를 위해 정회했다.

29

사측, 250억 출연제안... 조합, 영업이익의 5%억지논리 용인못해

29 일(오늘) 속개된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사측은 영업이익의 5%인 250 억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언했다.

사측은 당기순이익 1 조 2,896 억원 중 SKT 스왑 등으로 발생한 영업외 이익 7,752 억원을 제외하고 순수 종사원들이 노력한 대가인 영업이익의 5%를 출연하겠다는 억지논리를 펼쳤다.

이에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 세전당기순이익 5%라고 명시돼 있는데 영업이익의 5%를 논하는 것은 사실상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유명명무실하게 만들려는 의도라며, 사측의 말도 안되는 억지논리는 들어볼 필요도 없으며 그러한 접근방식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는 노사간 더 이상 대화의 진전이 없자 사측이 더 진전된 안을 고민하겠다고 정회를 요구해 복지기금협의회가 정회됐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후생복지제도의 일환으로 기업이익의 일부를 기금으로 출연하여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독립적인 후생복지 혜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19918.10 법률 제 4391 호)에 의거 성과배분을 통한 노동생산성 제고 및 항구적, 독립적인 사원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제도이다.

또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은 `사업주로서 하여금 사업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복지기금의 출연은 단체협약 제 91 조(사내근로복지기금) ②항에 `회사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원칙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적립한다`고 노사간에 약속되어 있다.」

신의성실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노사간에 법이고 약속이며, 노사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단체협약에 못박혀 있는 `세전 당기순이익의 5%`를 `영업이익의 5%`로 변경을 운운하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사측의 억지논리와 "조합원들이 신성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임금과 조합원 본인의 돈으로 매입한 KT 주식에 대한 배당금으로 우리조합원들이 이중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 않느냐"는 식의 비상식적이며 몰상식한 사측의 궤변논리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3 만 2 천 조합원과 노동조합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만일 사측이 세전 당기순이익 5% 복지기금 출연 약속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억지논리와 궤변논리로 2004 년 단체교섭을 소모전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면 노동조합은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다.

사측은 세전 당기순이익 5% 복지기금 출연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8

“ / ” ... !

노동조합과 회사는 노사관계개선협의회를 28일(오늘) 10:00 시에 개최하고 해고자 전원 복직에 대해 논의했다.

노동조합은 공기업시절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희생되어 길게는 10 년이 넘는 해고기간중인 해고자들을 포함하여 이제는 회사가 큰 포용력을 가지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해고자들을 전원복직 시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고자들도 예전의 사고에서 많이 바뀌었고 이제는 KT 울타리안에서 KT 발전을 위해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사측은 해고자 복직에 공감하나 그것은 회사의 발전과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한 후 판단해야 한다면서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사측은 회의 내내 해고자들의 변화된 자세를 요구했고 노동조합은 개인의 차원이 아닌 노사관계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 노동조합은 해고자전원복직과 더불어 "직군/직렬 통폐합"에 관해 회사에 제안을 했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8 개 직군, 21 개 직렬은 구시대적인 유물로 기술변화에 따른 현재의 실정에서는 그 의미를 상실했으며 오히려 고용불안을 야기시킬 뿐이다. 또한 통폐합의 방법에서도 회사가 전, 환직제도를 과거와 같이 선심성으로 이용하지 말고 민영기업에 걸맞게 일괄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조직안정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과거 회사에서 직군/직렬 통폐합을 제안했지만 그 당시 회사는 노동조합이 받아 들일 수 없는 인사시스템을 함께 들고나와 직군/직렬 통폐합을 반대할 수 밖에 없었다면서 이제는 과거 구시대적인 유물을 청산하고 직군/직렬간 차별성을 철폐하는 인사제도의 공정성과 승진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직군/직렬 통폐합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회사는 과거에 직군/직렬 통폐합을 필요로 했던 시기가 있었지만 현재의 상황은 많이 다르며 단지 직무별로 유사 직무의 통합은 현재 검토중이며 시험단계라고 말했다.

노사관계개선협의회는 노사간의 공방속에 11:00 시경 협의회를 마쳤다.

교섭회피하면 실무소위폐지 및 투쟁전개

·ESOP .. 가

26일 열린 임금실무소위원회에서 사측은 임금인상과 ESOP무상출연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다는 말만을 되풀이하며 사측안 제시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노동조합은 사측이 일부러 교섭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측안을 제시할 시점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직장단체보험 가입에 대해서는 사측안<표>을 제시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사측이 금액을 확정해놓고 출발할 경우 주보험과 특약에 대해 논의할 여지가 없어진다면 중복수혜까지 폐지해가며 논의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인원과 연령에 따라 보험 납입액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체보험 가입과 주보험, 특약의 수준을 먼저 정한다음 금액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측이 밝힌 최대 한도 10만원의 보험납입액은 전체 38억원의 수준에 그쳐 재해 및 질병 사망보상금 1억원을 지급한다면 38명의 사망으로 보험납입액은 바닥을 드러낼 것이다. 과연 현실성 있는 납입액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사측은 현재 사망자에 대한 퇴직가산금 등 중복 수혜를 제외하자고 주장한다. 고작 1~2천만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이라면 당초 노동조합은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한편, 정작 중요한 임금인상 및 ESOP 무상출연에 대해 사측은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검토가 진행중이며, 아직 발표할 시기가 아니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사측이 교섭을 지지부진 끌고 간다면 노동조합은 사측이 신의성실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단체교섭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판단하고 실무소위원회 폐지와 함께 노동조합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조합은 사측이 빠른 시일내 입장을 정리하여 밝히고 적극적인 교섭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은 제7차 전국지방본부위원장회의를 26일 14:0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열고 ▲단체 교섭 진행경과 보고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 출범에 대해 논의했다.

양정우 사무처장은 교섭경과를 보고하면서 사측이 대내외적인 경영상의 어려움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은 이번주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실무소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3차 본교섭과 향후 조합의 방향을 최종 결정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지재식위원장은 “현재 주5일근무, 임금인상 등 모든 것이 인건비와 결부되어 있으며 올해가 사장임기 중 마지막 교섭이기 때문에 경영진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는 힘든 교섭이라”며 “지방본부위원장들은 현장 조직 강화와 현장 조합원의 정서가 사측의 경영 어려움 논리에 알려들지 않도록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류춘용 조직처장은 IT연맹 창립에 대해 보고 했다. 7월 30일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창립대회를 갖는 IT연맹 건설은 통신관련 노동자들이 총체적 연대의 틀을 형성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재식위원장은 “IT연맹 창립이 노동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아직 단위노동조합들이 개별적인 어려움이 있어 다수 조직이 참여하는 창립대회가 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통신관련 노동조합의 구심이 될 것”이라고 연맹의 전망을 밝혔다. 한편 지방본부위원장들은 21세기 정보통신산업을 이끌며, IT노동자들의 구심점이 될 전국 IT산업노동조합 연맹을 힘차게 건설하자고 결의했다.

IT

통신산업 변동의 핵심 추진력은 빠른 기술변화와 수요변화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용자들은 고용환경의 유연화를 꾀하게 되고 인력관리와 노사관계 사이의 모순을 피하기 위해 비핵심 업무를 외주화 한다.

기획업무, 연구개발업무, 전문업무, 관리업무 등 핵심업무와 단순정형화된 비핵심업무로 나뉘어 비핵심업무를 외주화하고 있다. 현재 이뤄지고 있는 AS, 고객관리(CRM) 등 고객접점부서의 외주화가 그것이다. 특히 이동통신시장의 경우는 그 가속화가 더욱 심해 이미 핵심 기획, 연구, 관리 업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업무가 외주화 되었다.

그러나 모회사와 하청회사 사이의 관계는 다른 산업부문과 차별된 매우 긴밀한 하청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사실상 모회사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하는 하청회사는 고객에게 모회사와 동일시 되며 모회사와 여러 하청회사와의 관계는 지원과 통합, 지배·종속, 통제 등으로 이뤄진 중층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통신노동자들은 각기 다른 사용자의 소속으로 차별화된 인사와 고용관계를 맺고 있어 기업별 노동조합으로는 대응의 한계가 있다. 각 통신기업들은 모회사의 지휘아래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이미 고용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위 기업 노동조합만으로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유무선 통합 환경에 따라 기업들의 변화와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기술변화에 따라 고용환경은 날로 첨예화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이에 단일한 통신노동자의 구심점을 건설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용자와 정부의 잘못된 경영 및 통신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바로 7월 30일 창립하게 되는 전국 IT산업노동조합연맹이다.

IT

IT

정보통신시장 특히 통신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성장과 침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IT 산업 노동자들의 고용환경 또한 그 결과에 따라 급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 세대이동통신(WCDMA), 휴대인터넷,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지상파위성정보시스

템(LBS) 등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은 이해산업뿐만 아니라 파생산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정부는 정책의 결정에 있어 IT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막아왔다. 특히 정부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개입에 대해서는 자사이익을 위한 노동조합의 활동 또는 경영진의 활동과 동일선상으로 파악해 극히 꺼려왔던 것이 사실이다.

반면 90년대 후반 급격한 IT 산업의 성장으로 많은 인력들을 교육하고 배출되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전락했으며 저임금 고노동에 시달리게 된 현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벤처신화로 불리우는 몇몇 벤처기업의 성공은 저임금 고노동의 고통을 잊게 하는 최면제가 됐다. 정규직 또한 IMF 이후 급격한 경기침체와 시장환경의 정체라는 명목으로 고통을 강요 받고 지속되는 구조조정으로 항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제 IT 산업의 노동자들의 단일 조직을 구성해 노정 및 노사정 교섭구도를 이끌어내고 정부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고용환경을 안정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하고 있는 공익성 심사위원회의 참여, 통신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요구를 통해 노동자의 건전한 시각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공익성 심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기구로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이다. 지난해 소버린과 SK의 경영권 분쟁에서도 문제가 됐듯이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지배가 가시화 되고 있다.

물론 현재 49% 이상의 지분참여가 불가능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지만 이미 49%이하의 지분으로도 간접적인 경영간섭은 충분히 시행할 수 있다.

우리 IT 노동자들은 전국 IT 산업노동조합연맹을 통해 안으로는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시도하고 밖으로는 공익성 심사위원회 참가 등 정부 정책에 관여함으로써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며 산업민주화와 고용안정을 가져오는 매우 중요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IT

IT

IT

IT 산업은 상호 연관성이 매우 높은 업종중에 하나이다. 많지 않은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시장과 업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소프트웨어 산업도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하청과 하청 등 사슬고리로 연계되어 있다.

이는 노동자의 동질성이 높다는 것이며, 상호 현실과 공간적 공감이 크기에 단결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IT 산업노동조합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통일단결을 통해 차별을 해소하는 것에 주력을 두며, 또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동자의 통일단결을 통해 노동자의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방향을 수립하고 있기에 IT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정책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통신정책은 기업의 전망과 시장 흐름에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국의 통신정책은 국민과 합리성은 무시한 채 정치적 논리와 소수 재벌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 IT 연맹은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IT 노동자들이 생산하는 통신서비스가 국민을 위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되도록 적극 개입할 것이며, 특히 통신위원회의 자주성과 독립성에 대한 위상을 정립하는데 강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초국적 자본의 공세에 대응하는 자주적 통신정책 수립에도 힘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업종 교섭을 쟁취할 것이다.

IT 노동조합이 IT 노동자의 구심이 되어 노동조건과 올바른 통신정책을 수립하기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업종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기업별 단위 노동조합의 대응으로는 통신시장의 경쟁 논리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합의기구가 만들어 진다면 IT 연맹은 업종

교섭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물론 업종교섭은 요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단결을 통해 요구 조건을 단일화하고, 단일한 요구 조건을 투쟁과 교섭을 통해 쟁취해 내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전국 IT 산업 노동조합 연맹을 중심으로 IT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는 것이다.



[출처:노동조합 고발게시판 2004.07.28]

교섭을 시작한지 3주가 넘었다. 홈페이지를 보면 이러저런 핑계로 시간만 끌면서 사측은 노동조합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질긴놈이 이긴다고 아마도 사측은 지풀에 꺾기겠지 하는 생각으로 시간끌기만 하는것 같다. 그렇다면 노동조합도 전략을 바꿔야 할것 아닌가.

시첸말로 사측은 꿈수만 쓰지 더 이상 꿈쩍도 하지 않으니,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투쟁으로 전환해야 할 것 아닌가.

이 시점에서 노동조합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자. 조합비 내는 조합원으로서 우리도 한번은 써먹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계도 가동을 안하면 녹이 쓰는법.. 우리는 점점 녹슬어 가고 있다.

녹을 제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리하여 사측의 정신상태를 바꾸어놓아 노동조합이 살아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똑똑히 보여주자. 말로 해서는 안되는 걸...

[출처:노동조합 고발게시판 2004.07.29]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조합원들도 하나 둘씩 지쳐가고 있는 듯 하다. 임단협이 어서 빨리 성공적으로 끝나서 편안한 마음으로 산으로든 바다로든 떠나고 싶은 바람은 대다수 조합원들의 한결같은 마음이 아니겠는가?

물론 더이상의 기다림에 지친 사우들 역시 여름휴가를 떠나기도 하지만 그들의 마음 또한 마냥 기분좋고 가볍지만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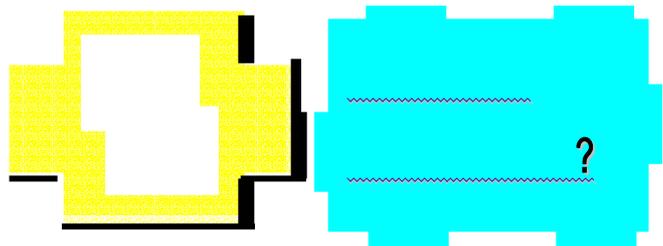
비록 일부의 사람들은 “중앙에서 교섭위원들이 교섭하면 그만이지 무슨 신경을 쓰느냐?”라고 묻을 수도 있겠으나 그만큼 주5일제 시행이라는 이번 임단협 협상 테마는 앞으로 우리 자신들이 직장생활하는 동안 내내 지속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본인들 직장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결정을 내리는데 직접 교섭은 할 수 없다지만 교섭위원들에게 나름의 힘을 실어 주는 것이 관심을 가져주는 방편이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모르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자칫 관심이 지나쳐 효율적인 협상 관행을 축적해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에서 실력대결만을 부추긴다든가 혹은 현 교섭위원들을 끌어 내리는 일부 과격 행위는 조합원에게 이로운 행동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우리 노사가 타회사보다 늦게 시작했음은 조합원들도 익히 알뿐더러 현재 쉽지 않은 교섭에 노동조합도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노사간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모색중인 이 시점에서 조합원을 선동하는 글이나, 단순억지, 내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주의 등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해낸다면 더 금상첨화지만 지금은 비록 조금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조금 더 현명한 결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조합측 교섭위원들께 진심으로 힘을 실어 줘야 할 시기일 것이다.



[출처 : <http://www.healthroad.co.kr>]

개도 안걸린다는 여름감기, 현대인이 잘 걸리는 이유는 바로 냉방병 때문?

♠ 감기 뿐만 아니라...

냉방병은 질병이 아니라 '증후군'입니다. 냉방 증후군이라고도 불리우는 냉방병은 실내와 실외의 급격한 온도 차이에 의해 몸의 균형이 깨져서 다음 다섯가지 범주에서 증상을 나타내는 것을 일컫습니다.

- 호흡기 증상 - 감기, 폐렴(레지오넬라 증, 폰티악 열) 등
- 전신증상 - 두통, 피로, 무력감, 요통, 한기 등
- 위장장애 - 소화불량, 하복부 불편감, 설사 등
- 여성생리 변화 - 생리 불순, 생리통
- 기존 만성질환의 악화 - 건강한 사람은 감기 정도로 끝나지만 노인이나 만성질환을 가진 사람은 증상이 매우 악화될 수 있다.

♠ 실내외 온도 차 줄여야

여름은 덥게 지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덥더라도 실내 공기를 25°C 이상으로 유지하고 한시간마다 환기를 시켜 실내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주범인 더러운 에어컨 필터를 2주에 한번 씩은 청소를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검게 그을린 건강한 피부를 갖고 싶을 때 하는 선택, 하지만 햇빛에 피부를 노출시키면 화상이 생긴다던데? 인공선택을 하며 괜찮으려나?

▣ 선택과 일광화상의 차이

자외선으로부터 멜라닌이란 색소를 만들어서 피부를 보호하려는 작용을 탄(Tan)이라고 합니다. 이 멜라닌 색소는 자외선의 세가지 종류 중 A형(UVA)이 피부의 심층에서 만들어 냅니다. 반면에 햇빛에 의한 기미나 주근깨, 피부염, 일광화상 등은 자외선의 세가지 종류 중에 B형(UVB)이 피부의 얇은 층에서 잘 만들어 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택은 자외선 B는 차단해주고 A는 투과시켜 주는 오일이나 크림을 발라서 피부를 까맣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지요.

▣ 선택하다가도 일광화상을 입을 수 있다

하지만 UVA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들이 자외선B를 완전하게 차단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피부의

얇은 층에서 흡수된 자외선 B는 선택(Tan)효과를 나타내기 전에 화상을 먼저 일으키는 것이지요. 때문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UVB가 화상을 일으키지 않게 적당히 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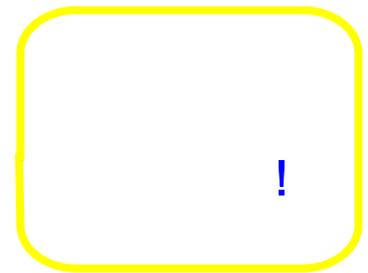
▣ 인공 선택은 안전하다?

인공선택도 햇빛에 선택을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간만 있으면 여름이 아니더라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뿐 자외선으로 피부를 태우는 것이기 때문에 똑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광선택과 똑같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외선을 많이 쬐면 색소침착, 피부노화, 일광화상, 피부암 등이 생길 수 있다.

자외선 ABC는 모두 해롭다. 자외선에는 장파(UVA), 중파(UVB), 단파(UVC) 세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UVA는 일광화상과 피부암, UVB는 피부노화와 색소침착, UVC는 피부암(오존층이 막아줌)을 일으키는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요.

이 중 UVB는 시중에 나와 있는 자외선 차단제를 잘 쓰면 막을 수 있지만(SPF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낸 지수) 아직 우리나라에 자외선 차단제에 UVA나 UVC를 막는 성분을 첨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의 올바른 선택은 소비자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출처 : <http://www.darotv.com>]

누구나 가는 유명한 관광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포즈를 하고 똑같은 사진을 찍고. 더 이상 똑같은 여행은 싫다. 아무것도 정하지 않고 무작정 떠나는 무모함이 때로는 '똑같은'에 길들여져서 '똑같은'이 최고인줄 아는 '똑같은' 우리들에게 일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완주는 사실 우리들에게 흔히 알려져 있는 관광지는 아니다. 제주도나 강원도처럼 수려한 자연과 바다로 사람을 유혹하는 것도 아니요, 남

도 지방처럼 유구한 문화와 자연으로 역사적인 깊이를 가진 곳이라 보기에 힘들다.

- 대아수목원 - 운일암, 반일암 - 화암사 - 화심순두부 - 깊은산속옹달샘 - 주변볼거리

수도권에 거주하는 이들이라면 수목원하면 대개 광릉 수목원만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완주에도 광릉 수목원 못지 않은 수목원이 있다.

대아댐을 끼고도는 호반도로를 따라 은천계곡으로 들어가서 마을 앞 다리를 건너면 나오는 대아수목원.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해서 산림욕장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대아수목원에는 국내외의 다양한 산림수종들을 보존하고 있어서 자연학습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수목원내에 있는 산림자료실은 갖가지 산림수종과 곤충, 조류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 전시하고 있어서 규모는 작지만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데 한 몫을 하고 있다.

대아수목원에 왔다면 전국 최대규모의 금낭화 군락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약 2만평에 걸쳐서 자생하고 있는 금낭화는 도심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꽃인데 4월 하순에서 5월 초까지 분홍색의 주머니 모양으로 주렁주렁 매달린 것처럼 꽃을 피운다.

2000년 하순에 발견된 이 군락지는 약 20분정도 등산로를 따라 올라가면 만날 수 있는데 금낭화가 만개할 시기에는 장관을 연출한다. 약 6.3킬로미터의 산책로는 수려한 경관과 산림욕을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중수골의 정상에서 대아저수지를 내려다보는 경치가 일품이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 삼례IC - 17번국도 - 732번지방도 - 고산 - 대아휴양림

벌써 등줄기에 한줄기 흐르는 땀을 느낀다면 시원한 계곡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찾아 가는 곳은 완주 최고의 피서지, 운일암. 대아수목원에서 차를 타고 대불리 쪽으로 약 20분쯤 가다보면 운일암, 반일암 계곡이 나온다.

운장산 동북쪽에 있는 이 계곡은 약 5킬로미터에 걸쳐서 흐르고 있는데 운일암과 반일암이라는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다. 깎아지른 절벽에 구름과 해와 바위밖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운일암이라 불리기도 하고 계곡이 하도 깊어서

해가 반나절 밖에 드리우지 않는다고 해서 반일암이라 불리기도 한다.

계곡에서 시원하게 발 담그는 것도 좋지만 보다 교육적인 여행이나 얻는 여행을 추구하는 이들이라면 이곳에서 꼭 찾아가 봐야 하는 사찰이 있다. 불명산 시루봉 남쪽에 자리잡은 화암사로 올라가는 길은 그야말로 울울창창하다.

숲길을 따라 약 10여분쯤 걸다보면 폭포위로 철제로 만들어놓은 계단이 있다. 계단을 오르면 오르는 내내 발돋움을 해가며 찾아보아도 처마 끝 기와 한 장 보여주지 않던 암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눈앞에 나타난다.

천년고찰이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리게도 맨 처음 찾는 이를 맞이하는 것은 보물 662호로 지정되어 있는 우화루(雨花樓)다. 공중 누각형식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지난 오랜 세월을 말해주듯이 고색 창연하게 서있다. 화암사의 특징은 일반적인 사찰건축양식인 '누하진입(樓下進入)' 방식을 무시하고 지었다는 것이다. 보물 663호인 화암사 극락전은 명나라의 건축양식을 수용한 우리나라 유일의 건축물로서 그 건축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찾아가는길 : 호남고속도로 - 삼례IC - 17번국도 - 732번지방도 - 봉동 - 고산 - 깊은산속 옹달샘

-대아저수지

인공댐으로 주변 경관이 매우 수려하다. 특히 대아저수지를 끼고 도는 호반도로는 드라이브 코스로도 각광받고 있다.

-대둔산도립공원

남한의 소금강이라 불리우는 대둔산도립공원은 웅장한 산세와 기암절벽이 어우러져 뛰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고산자연휴양림

692ha에 걸쳐 뾰뾰한 수림이 들어차 있고 경치도 좋다. 여러가지 편의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에도 모자람이 없다.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은근한 깊이와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땅, 완주로의 여행. 굳이 뭔가를 보려 하지 않아도 만나는 사람들의 따뜻한 인정만으로도 이곳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밖에 없는 땅이기에 오늘도 소리 소문없이 완주로의 여행을 꿈꾸는 이들이 늘어 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